한화투자증권

2026년 1월 5일

Fixed Inc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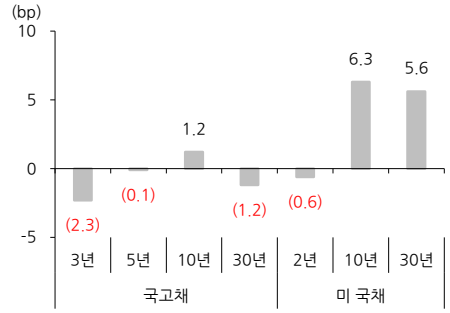
FI Weekly

연초가 기회다

▶ 채권전략 김성수 sungsoo.kim@hanwha.com / 3772-7616

[주요 데이터 및 차트]

주간 한미 국채 금리 변동



주간 금리 예상 Range

금리, 스프레드	전주(1/2)	예상 Range	방향성
국고 3년	2.94%	2.88~3.00%	약보합
국고 5년	3.24%	3.18~3.30%	강보합
국고 10년	3.39%	3.33~3.43%	강보합
국고 10-3년	45.1bp	40.0~48.0bp	축소
미국 10년	4.19%	4.15~4.27%	상승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이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해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저작권이 당사에 있으며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이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나 정보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국고채, 버벅거릴 때 사자

통상 새해 자금이 집행되면 국고채 금리도 하락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금리 흐름에 연초효과는 부재. 2010~2025년 1월 국고채 금리 변동 추이를 보면 국고 3년 금리가 하락한 해는 8개년, 상승한 해는 7개년. 국고 10년 금리는 하락, 상승한 해가 각각 6개년, 9개년. 15번의 1월 국고 3년, 10년 금리 변동 폭은 5.3bp, 3.4bp

거시적 관점에서도 당장 금리의 하락 가능성은 제한적. 통화정책 기대는 사라진 지 오래. 성장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순항 중. 반도체 업황을 보았을 때 경제가 한두 달 안에 고꾸라지지는 않을 것. 그러나 상반기는 수급이 핵심. 국고채 공급 우려는 일부 덜어낸 상황. WGBI 관련 새로운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확실. 공급의 부정적 색채는 옅어졌고, 수요는 분명 평소보다 긍정적. 상반기 말 금리 레벨은 지금보다 낮을 전망. 캐리와 자본차익 모두 노려볼 때

크레딧, 예년보다 강력할 연초효과

크레딧 시장은 강력한 연초효과가 존재. 매해 1월 시장을 막론하고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된 적은 단 한번도 없음. 다섯 개 시장 1월 평균 국고 3년 대비 스프레드 변동 폭은 -5.9bp. 여기에 더해 연말 스프레드가 확대된 다음 해 스프레드 축소 폭은 상대적으로 큰 편. 연말 스프레드가 확대되었을 때 새해 스프레드 평균 변동 폭은 -6.8bp,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을 때의 평균은 -3.9bp. 2025년 12월 크레딧 시장 스프레드는 평균 3.1bp 확대. 예년 평균값은 +2.3bp

새해 크레딧 채권 발행 증가가 스프레드 흐름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 주요 기관 자금 집행 재개에 따른 수요가 발행 물량을 무난하게 소화하기 때문. 연초효과가 없는 국고채 시장, 연초효과가 강력한 크레딧 시장 모두 2026년 1월은 매수의 시간. 사지 않을 이유가 없음

Ⅱ. 채권시장 전망

1. 이슈: 연초가 기회다

국고도, 크레딧도 연초가 기회

1월 국고채 시장은 버벅거릴 금리 흐름이, 크레딧 시장은 평소보다 강할 연초효과가 기회다. 국고채 금리는 당분간 가파르게 내려오기 힘들 것이다. 매크로 관점에서 장, 단기 금리 모두 뚜렷한 하락 요인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은 공급 부담과 WGBI 관련 자금 유입을 고려하면 버벅거리는 지금이 매수에 나서야 한다. 캐리와 자본차익 모두 노려볼 수 있는 병오년 상반기다.

국고채 시장 연초효과 없지만

통상 새해 자금이 집행되면 국고채 금리도 하락할 것 같지만 금리 흐름에 연초효과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2010~2025(레고랜드 여파가 있었던 2023년 제외)년 1월 국고채 금리 변동 추이를 보면 국고 3년 금리가 하락한 해는 8개년, 상승한 해는 7개년이다. 국고 10년 금리는 하락, 상승한 해가 각각 6개년, 9개년이다. 15번의 1월 국고 3년, 10년 금리 변동 폭은 5.3bp, 3.4bp다. 오르면 올랐지 내려가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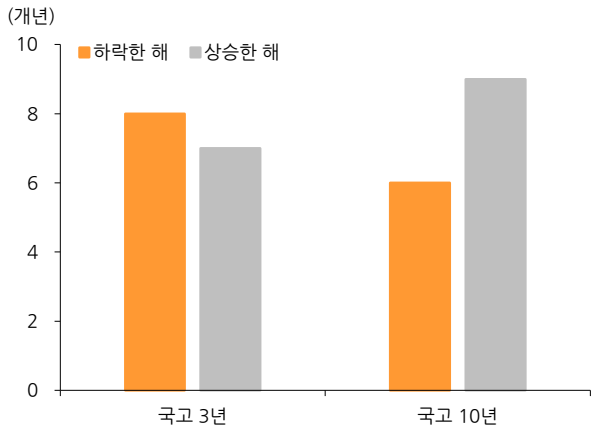
수급이 가하는 하방 압력 점증될 것

결국 국고채 시장은 매크로에 주목해야 한다. 거시적 관점에서 당장 금리가 하락하기는 어렵다. 통화정책 기대는 사라진 지 오래다. 총재는 1월 금통위에서 주의깊게 보는 것은 환율이라고 했다. 부동산 시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신년사에서는 환율이 물가에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성장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순항 중이다. 반도체 업황을 보았을 때 경제가 한두 달 안에 고꾸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은 '캐리+자본차익' 둘 다 노려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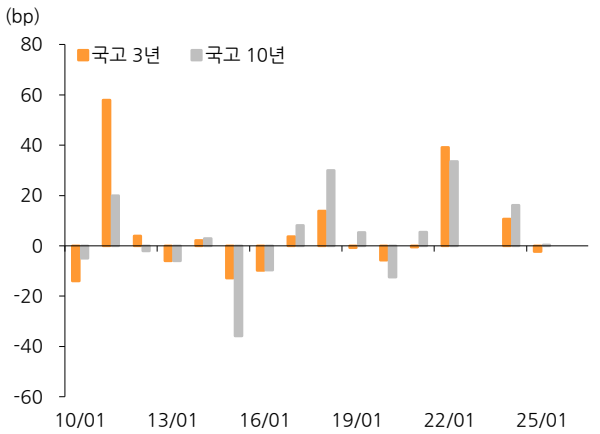
수급은 다르다. 지난 보고서들에서 설명했듯 공급 우려는 일부 덜어냈다. WGBI 관련 자금 유입 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투자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확실하다. 공급의 부정적 색채는 옅어졌고, 수요는 분명 평소보다 긍정적이다. 종합했을 때 상반기 말 금리 레벨은 지금보다 낮을 전망이다. 지금 사야한다.

[그림1] 상반기 국고채 발행 규모 및 비중 추이



주: 레고랜드 사태 여파 감안, 2023년은 제외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월별 국고채 발행 규모 추이



주: 레고랜드 사태 여파 감안, 2023년은 제외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크레딧 시장은 연초효과 뚜렷

크레딧 시장은 강력한 연초효과가 존재한다. 매해 1월(2010~2025년), 시장을 막론하고 크레딧 스프레드가 확대된 적은 단 한번도 없다. 다섯 개 시장 1월 평균 국고 3년 대비 스프레드 변동 폭은 -5.9bp(공사채(AAA): -4.4bp, 은행채(AAA): -4.7bp, 카드채(AA+): -6.8bp, 캐피탈채(AA-): -7.2bp, 회사채(AA-): -6.4bp)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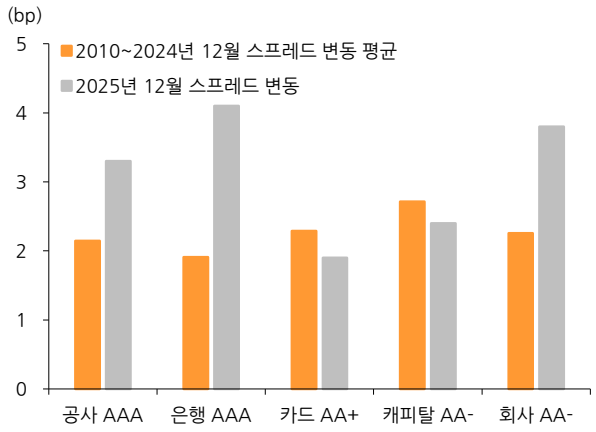
직전 해 스프레드 확대 시 연초효과는 더욱 강해짐

여기에 더해 연말 스프레드가 확대된 다음 해 스프레드 축소 폭은 상대적으로 크다. 연말 스프레드가 확대된 그 다음 해 스프레드 평균 변동 폭은 -6.8bp, 연말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을 때의 평균은 -3.9bp다. 2025년 12월 5개 크레딧 시장 스프레드는 평균 3.1bp 확대되었다. 예년 평균값은 +2.3bp다.

공급량 증가보다 새해 수요가 더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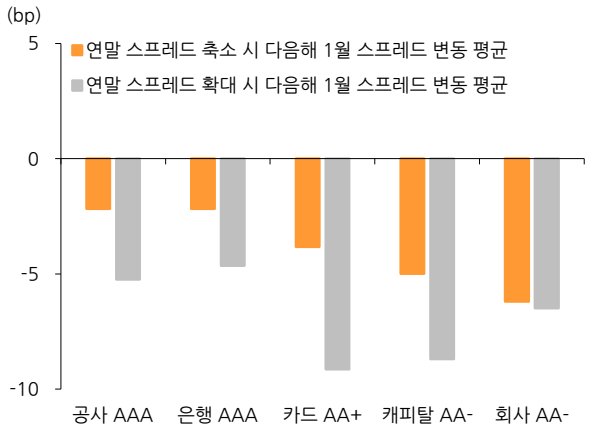
연초 발행량이 늘어나면 계절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크레딧 채권 발행 규모와 스프레드 흐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없다. 연초 주요 기관 자금 집행에 따른 수요가 발행 물량을 무난하게 소화하기 때문이다. 연초효과가 없는 국고채 시장, 연초효과가 강력한 크레딧 시장 모두 2026년 1월은 매수의 시간이다. 사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림3] 연도별 12 월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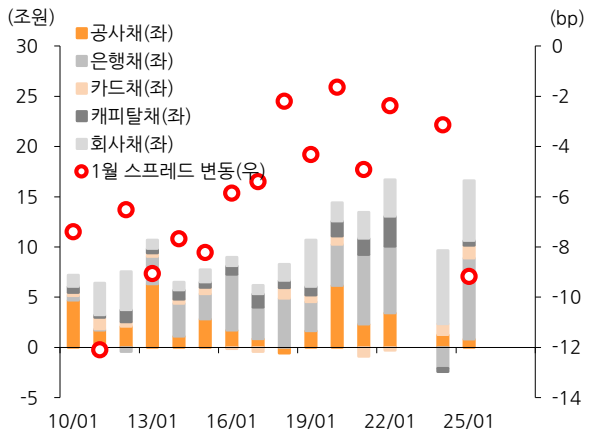
주: 레고랜드 사태 여파 감안, 2022, 2023년은 제외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연말 스프레드 축소/확대에 따른 연초 변동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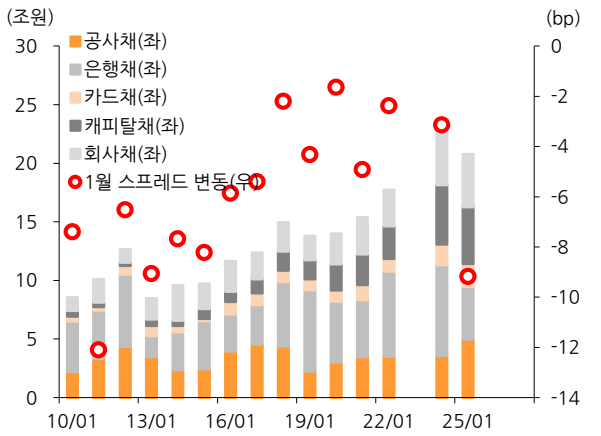
주: 레고랜드 사태 여파 감안, 2022, 2023년은 제외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1월 크레딧 채권 순발행량 및 스프레드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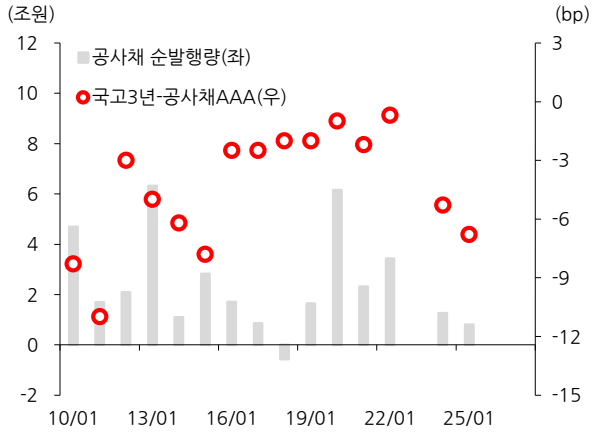
주: 레고랜드 사태 여파 감안, 2023년은 제외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1월 만기 도래 크레딧 채권 및 스프레드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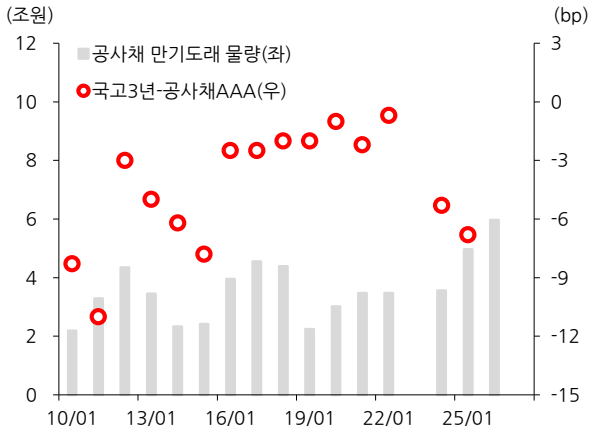
주: 레고랜드 사태 여파 감안, 2023년은 제외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1월 공사채 순발행량 및 스프레드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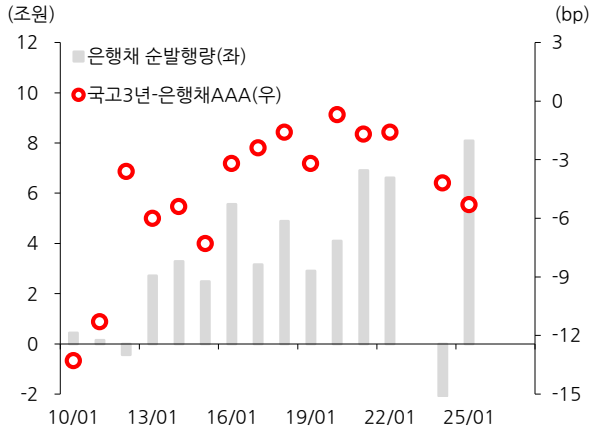
주: 레고랜드 사태 여파 감안, 2023년은 제외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1월 공사채 만기도래 물량 및 스프레드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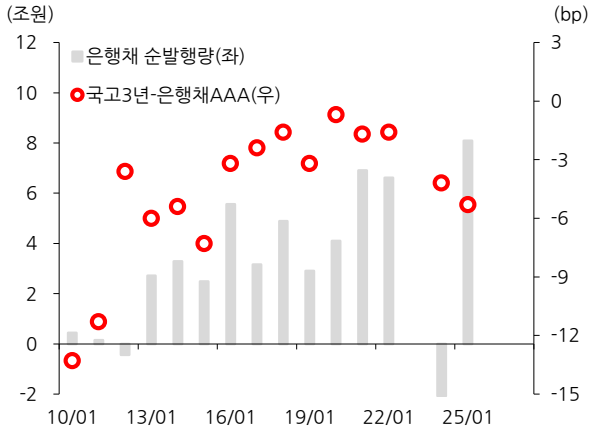
주: 레고랜드 사태 여파 감안, 2023년은 제외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1월 은행채 순발행량 및 스프레드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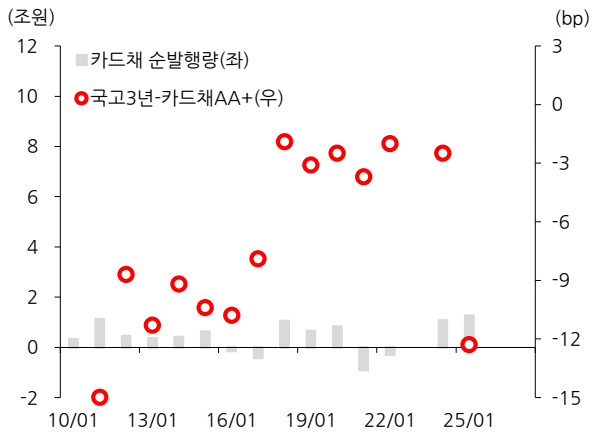
주: 레고랜드 사태 여파 감안, 2023년은 제외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0] 1월 은행채 만기도래 물량 및 스프레드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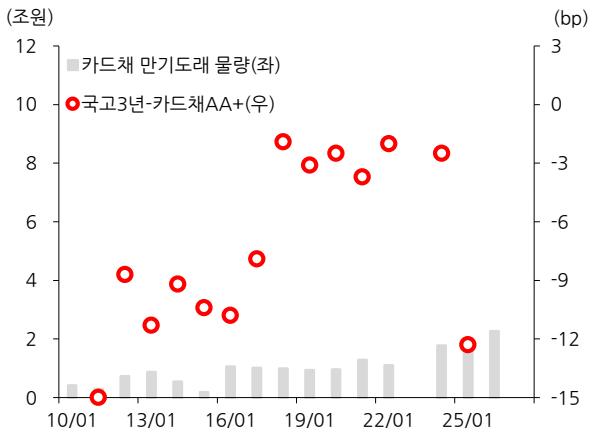
주: 레고랜드 사태 여파 감안, 2023년은 제외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1] 1월 카드채 순발행량 및 스프레드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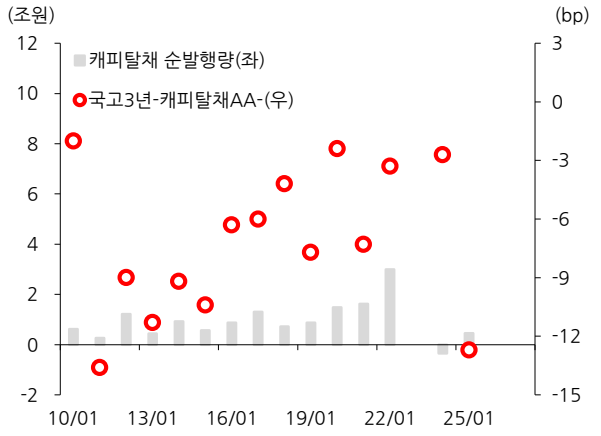
주: 레고랜드 사태 여파 감안, 2023년은 제외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2] 1월 카드채 만기도래 물량 및 스프레드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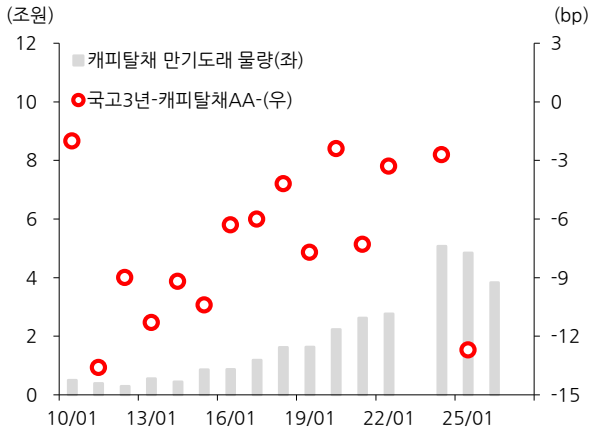
주: 레고랜드 사태 여파 감안, 2023년은 제외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3] 1월 캐피탈채 순발행량 및 스프레드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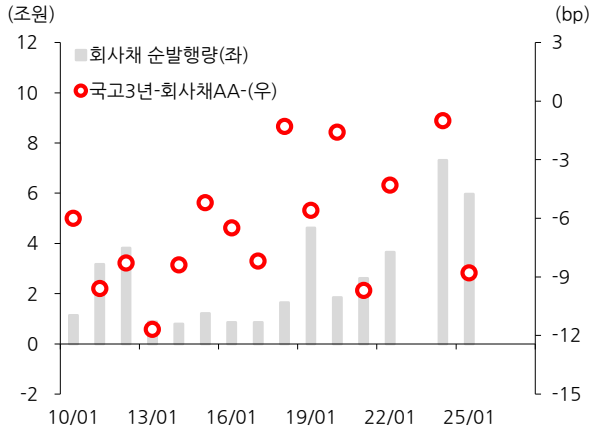
주: 레고랜드 사태 여파 감안, 2023년은 제외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4] 1월 캐피탈채 만기도래 물량 및 스프레드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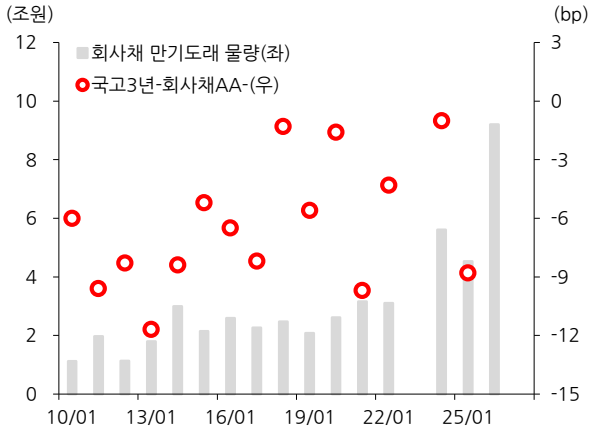
주: 레고랜드 사태 여파 감안, 2023년은 제외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5] 1월 회사채 순발행량 및 스프레드 변동 추이



주: 레고랜드 사태 여파 감안, 2023년은 제외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6] 1월 회사채 만기도래 물량 및 스프레드 변동 추이



주: 레고랜드 사태 여파 감안, 2023년은 제외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2. 전략: 버벅거릴 때 사자

국고 3년: 2.88~3.00%
국고 10년: 3.33~3.43%

이번주 국고채 금리 밴드는 3년, 10년 각각 2.88~3.00%, 3.33~3.43%를 제시한다. 주중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이창용 총재는 신년사와 인터뷰에서 당분간 통화정책 조정이 없을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방 압력이 소폭 우세한 장세를 보이겠으나, 단기 구간은 하단이 단단해지는 모습을 예상한다. 수익률 커브 역시 Flattening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버벅거리는 지금이 매수의 기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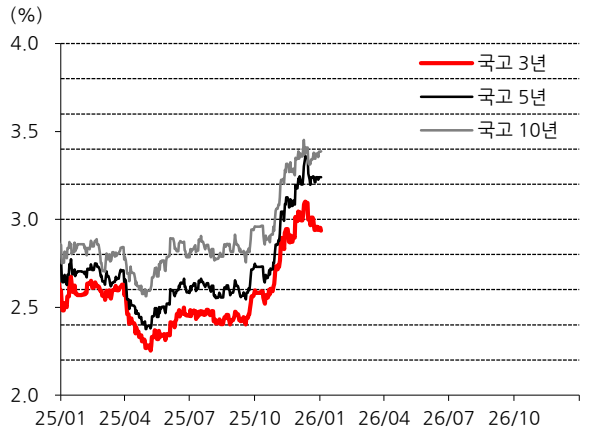
소멸을 넘어 박멸되어 가는 통화정책 기대감

총재는 1월 금통위의 현안 과제로 환율을 꼽았다. 부동산 시장은 11월 금통위 때와 크게 변한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 2026년 첫 금통위는 환율을 중심으로 한 금융안정이 재차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당장은 수급 말고는 시장 금리 방향성을 뚜렷하게 제시할 재료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 10년, 고용지표에 따라 4.20% 상회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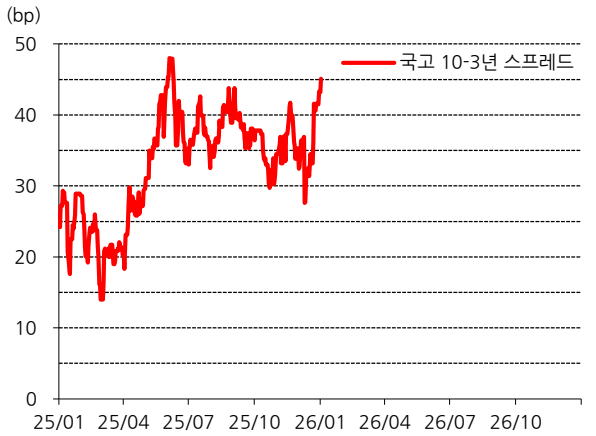
미국은 주중 ISM 제조업, 서비스업지수가 이틀 간격으로 발표된다. '제조업 발표 때 하락 + 서비스업 발표 때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될 공산이 커 보인다. 주 후반에는 12월 고용보고서 공개가 예정되어있다. 연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4.5%' 이하 수치가 발표될 경우 10년 금리는 4.20%를 여유롭게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모델 기반 시카고 연은 12월 실업률은 4.49%다.

[그림17] 주요 국고채 금리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18] 국고 10-3 년 스프레드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예상 금리 Range					
금리, 스프레드	동향(대비)			예상 Range	방향성
	연초	월초	전주(1/2)		
국고 3 년	2.95%(-1.8bp)	2.95%(-1.8bp)	2.94%(-2.3bp)	2.88~3.00%	약보합
국고 5 년	3.24%(-0.1bp)	3.24%(-0.1bp)	3.24%(-0.1bp)	3.18~3.30%	강보합
국고 10 년	3.39%(+0.1bp)	3.39%(+0.1bp)	3.39%(+1.2bp)	3.33~3.43%	강보합
국고 10-3 년	43.2bp(+1.9p)	43.2bp(+1.9p)	45.1bp(+3.5bp)	40.0~48.0bp	축소
미국 10 년	4.17%(+2.4bp)	4.17%(+2.4bp)	4.19%(+6.3bp)	4.15~4.27%	상승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3. 통화정책 Tracker

[표1] 중앙은행 인사 발언 주요 내용

일자	성명 (직책)	성향, 투표권	발언 주요 내용
1/2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 올해 대외 여건은 통상환경과 주요국의 재정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 - 대미 투자협정과 관련해서도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자금이 원화 약세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 - 그러나 200억달러는 최대치를 의미하며, 양국 간 MOU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실제 투자 규모는 외환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 즉, 매년 기계적으로 200억달러가 대미 투자 자금으로 유출되는 것이 아님 - 주요국의 재정 건전성과 국채시장 여건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 이들이 처한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재정, 금융의 경계선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까지 올라갔음. 그러나 일시적 요인이 완화되면, 올해 연간으로는 수요 압력이 높지 않은 가운데 물가상승률이 작년과 같은 2.1%를 기록하며 주요국보다는 안정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 다만, 높은 환율 수준이 지속될 경우 물가 상승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아울러, 팬데믹 이후 상승한 물가상승률이 누적된 결과, 높아진 생활물가 수준도 우려되는 부분 - 올해는 성장률이 1.8%로 잠재수준에 근접할 전망. 그러나 IT 부문을 제외할 경우, 성장률은 1.4%에 그치고 부문 간 회복 격차가 커 체감경기와는 괴리가 클 것. 이러한 'K자형 회복'은 결코 지속 가능하고 완전한 회복으로 보기 어려움 - 우리나라는 순대외채권국으로 대외 건전성이 양호한 만큼, 최근의 환율 수준만으로 과거 위기 상황과 유사하다고 보는 시각은 부적절. 그러나 환율 상승이 물가 상승압력을 높이고, 내수기업 등에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 - 적정 환율 수준을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1,400원대 후반 환율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는 괴리가 큰 수준. 환율이 높아진 배경에는 한미 간 성장률 및 금리 격차, 코리아 디스카운트 등이 주요 요인 - 10월 이후 달러화 움직임보다 원화 절하 폭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은, 지속적으로 늘어난 거주자의 해외증권투자가 외환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하여 단기적으로 환율 상승에 큰 압력을 가했기 때문 - 거주자의 지속적인 해외투자 확대가 거시적으로 우리 경제 성장과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 - 시장 기대에 후행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하지 말고, 정책여건이 변화할 때 그에 따른 통화정책 방향성을 적시에 설명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중요한 책임 - 금통위원의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의 운용 방향 등 재점검 예정 -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준재정 정책적 성격을 줄이는 대신 금리정책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금리정책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지방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선별적이고 한시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것 - 대출제도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도 확대해 나갈 것. '은행 대출채권 적격담보시스템'을 올해부터 가동, 금융안정 차원에서 앞으로 그 대상을 비은행예금취급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 논의 중

자료: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Ⅱ. 채권시장 동향

글로벌 국채금리 선진국 중심 상승

지난주 글로벌 국채금리는 선진국 중심으로 상승했다. 연말연초를 맞아 특별한 이슈는 부재했던 가운데 유럽 지역은 위험자산 선호심리 부각, 1월 국채 발행량 증가 예상 등이 금리 상승을 이끌었다. 통상 유럽은 1월에 국채가 적극적으로 발행된다. 브라질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감소하며 채권시장이 강세를 보였다.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가택연금형 신청을 기각했다. 쿠데타 혐의로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12월 초 아들을 대선 주자로 지목한 바 있다.

미국 금리 2년 제외하고 대부분 상승

미 국채 시장은 2년 구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약세 마감했다. 유럽 주요국 금리 상승세에 연동된 모습을 보였다. 연초 미국 회사채 발행 재개 가능성도 금리 상승 재료로 작용했다. 주중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으나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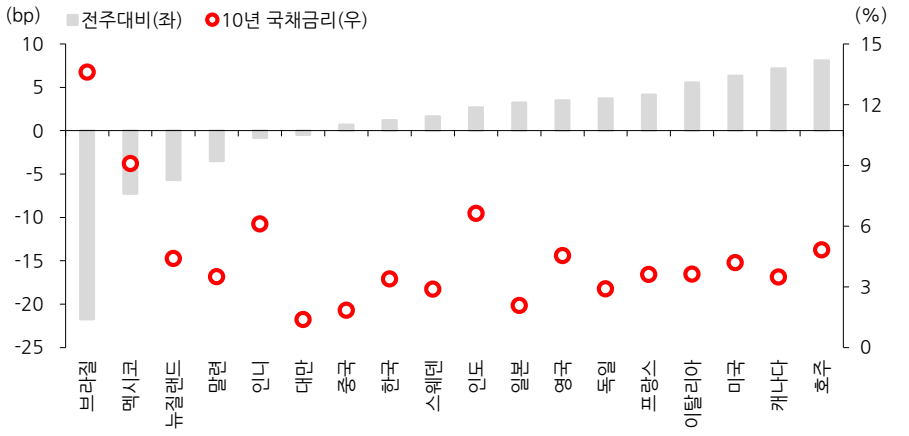
국고채 금리 만기별 혼조세

국고채 금리는 만기별 혼조세를 보였다. 한산한 거래량 영향에 금리 등락폭은 제한되었다. 새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신년사, 인터뷰가 매파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국고 3년, 10년 금리는 전주 대비 각각 2.3bp 하락, 1.2bp 상승한 2.96%, 3.37%를 기록했다.

크레딧 스프레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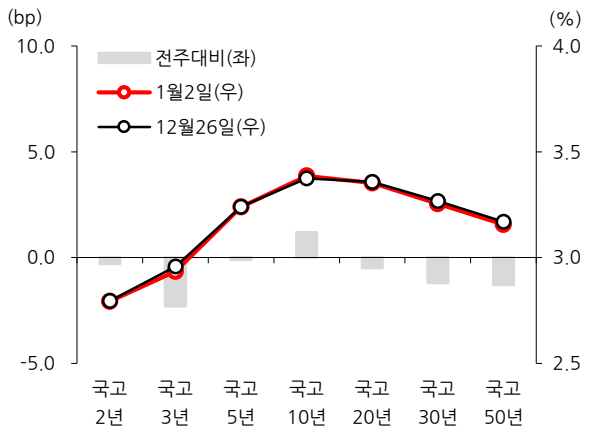
민평 기준 국고 3년, 10년 금리는 전주 대비 각각 3.4bp 하락, 0.5bp 상승한 2.93%, 3.39%를 기록했다. 연초효과가 발현되면서 대부분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되었다. 여전채 스프레드 축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공사, 은행채 등 초우량등급 스프레드 축소 폭은 제한적이었다. 국고 3년 대비 동일만기 회사채 AA- 스프레드는 50.3bp로 전주 대비 1.2bp 축소되었다.

[그림19] 주간 주요국 채권 금리 변동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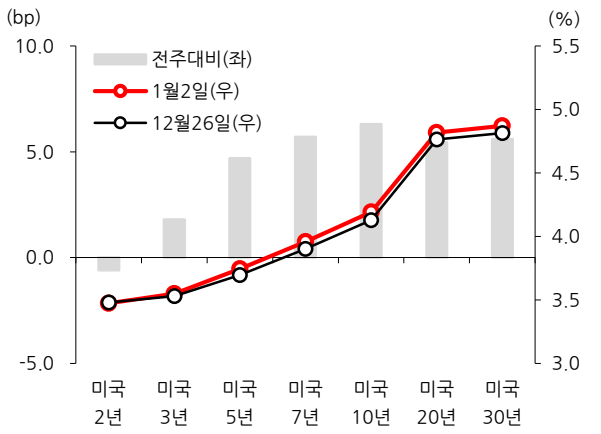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0] 주간 국고채 수익률 커브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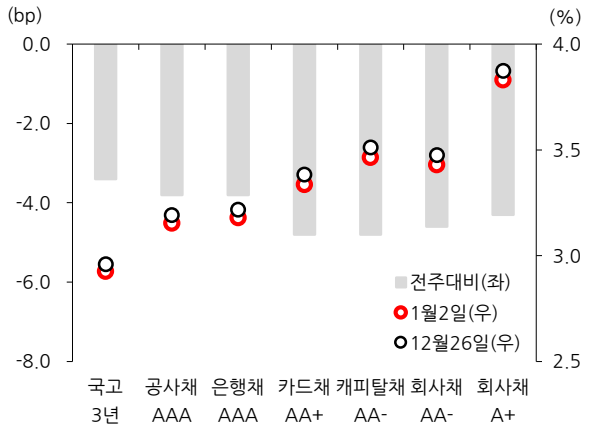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1] 주간 미 국채 수익률 커브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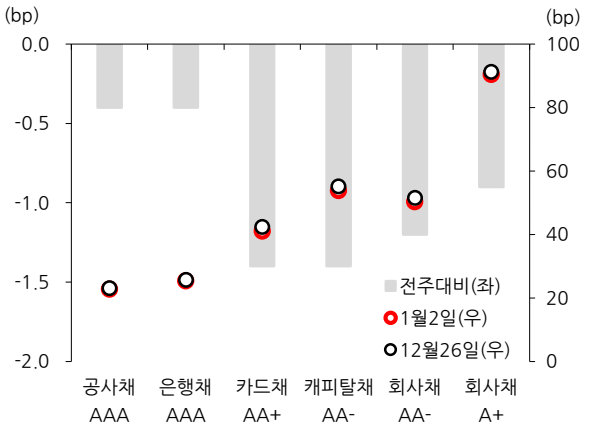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2] 주간 주요 크레딧 금리 변동



주: 민평 3사 기준 3년 만기 금리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3] 주간 주요 크레딧 스프레드 변동



주: 민평 3사 기준. 스프레드는 국고 3년에서 동일만기 금리를 차감한 값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2] 채권 신용등급 변동

기업	평가일	직전등급	전망	변경등급	전망	평가사
한진	2025-12-29	BBB+	안정적	**BBB+**	**긍정적**	한국신용평가
	-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에 힘입은 안정적인 이익창출력 - 투자부담 축소에 따른 점진적인 재무부담 완화 전망 - 다각화된 사업포트폴리오를 통한 사업안정성과 안정적인 이익창출력, 재무부담 완화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등급전망은 긍정적					
콘텐트리중앙	2025-12-29	BBB	부정적	**BBB-**	**안정적**	한국신용평가
	- 메가박스중앙의 신용도 저하 - 관계사 출자 및 대여 등으로 별도기준 재무부담 심화 - 지주사로서의 구조적 후순위성 - 계열사에 대한 높은 재무적 연계성					
에스케이지오센트릭	2025-12-29	AA-	안정적	**AA-**	**부정적**	한국신용평가
	- 방향족 제품 스프레드 축소에 따른 이익창출력 약화 - 재무안정성 저하, 실질 재무부담 확대 - 계열 내 수직계열화된 생산체제 - SK그룹의 유사시 지원가능성(1 Notch Uplift 반영) - 주력 제품의 비우호적인 수급 환경에 따른 이익창출력 약화와 재무안정성 저하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신용등급 전망은 부정적					
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30	AA-	안정적	**AA-**	**긍정적**	한국신용평가
	- 수주잔고 증가세, 대규모 양산 산업 진행에 따른 외형 및 영업이익 확대 - 대형 사업 납품 개시 이후 재무안정성 지표 개선 전망 - 국내 독점적 지위, 높은 기술력 및 양산능력에 기반한 우수한 사업안정성 - 주요 프로젝트 진행 일정에 따른 이익창출력 및 재무안정성 개선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신용등급 전망은 긍정적					
포스코인터내셔널	2025-12-30	AA-	안정적	**AA-**	**긍정적**	NICE신용평가
	- Trading, 자원개발, LNG터미널, 발전 등 다변화된 사업포트폴리오 - 주력사업들의 안정적 사업기반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이익창출력 - 중기적으로 투자부담 지속될 예정이나, 원활한 대응 예상 - 재무안정성 우수한 수준 지속 전망 - 사업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한 EBITDA 창출력 및 실적안정성 제고, 우수한 수준의 재무안정성 유지 전망 등 반영					

주: 무보증/공모 회사 및 금융채

자료: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3] 기업 신용등급 변동

기업	평가일	변경등급	전망	직전등급	전망	평가사
	-					
	-					
	-					

자료: NICE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표4] 수요예측 결과

종목코드	몽목명	발행일	최종 이자율	결정 스프레드	금액 (억원)	참여수량 (억원)	단순 경쟁률(배)	신용등급	만기	기준금리

자료: 연합인포맥스,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

Ⅲ. 채권시장 주요일정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5 Kashkari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강경, O) 연설	6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미국)** 12월 ISM 제조업지수 (예상: 48.4, 전월: 48.2, 전년: 49.2)	7	8 **(미국)** 12월 ISM 서비스업지수 (예상: 52.3, 전월: 52.6, 전년: 54.0) 10월 공장수주 (예상(m): -1.0%, 전월비: 0.2%, 전년비: 3.6%) 10월 내구재 주문 (전월비: -2.2%, 전년비: 4.7%) 10월 수출입 (수출 전월비: 3.0%, 전년비: 5.7%) (수입 전월비: 0.6%, 전년비: -3.7%) **(유로존)** 11월 PPI (전월비: 0.1%, 전년비: -0.5%) 11월 실업률 (예상: 6.4%, 전월: 6.4%, 전년: 6.2%)	9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한국)** 11월 경상수지 (전월: +68.1 억$, 전년: +100.5 억$) **(미국)** 12월 뉴욕 연은 기대인플레이션(1년) (전월: 3.2%, 전년: 3.0%) 12월 비농업 고용자수 (예상: 5.5 만명, 전월: 6.4 만명, 전년: 32.3 만명) 12월 실업률 (예상: 4.5%, 전월: 4.6%, 전년: 4.2%) 10월 주택착공(전월, 전년비는 8월) (예상(m): 1.4%, 전월비: -8.5%, 전년비: -6.0%) **(유로존)** 11월 소매판매 (예상(m): 0.1%, 전월비: 0.0%, 전년비: 1.5%) **(중국)** 12월 CPI, Core CPI (CPI 전월비: -0.1%, 전년비: 0.7%) (Core 전월비: -0.1%, 전년비: 1.2%) 12월 PPI (전월비: 0.1%, 전년비: -2.2%)
국고 2년 입찰 2조 8,000억원	국고 30년 입찰 4조 3,000억원	국고	국고	국고
통안	통안	통안 2년 입찰 2조 2,000억원	통안	통안 9,800억원
은행	은행 만기 5,000억원	은행 만기 700억원	은행 만기 500억원	은행 만기 2,000억원
카드 만기 1,600억원	카드 만기 2,000억원	카드 만기 200억원	카드 만기 100억원	카드 만기 3,300억원
회사 발행 35억원 / 만기 350억원	회사 만기 4억원	회사	회사 만기 280억원	회사 만기 930억원
12 일본 휴장(성인의 날)	13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중립, O) 연설 **(미국)** 3년 국채 입찰 (3.61%, 간접: 72.0%, 응찰률: 2.64배) 10년 국채 입찰 (4.18%, 간접: 70.2%, 응찰률: 2.55배) 12월 NFIB 중소기업 낙관지수 (전월: 99.0, 전년: 105.1) 12월 CPI, Core CPI(전월비는 9월) (CPI 전월비: 0.3%, 전년비: 2.7%) (Core 전월비: 0.2%, 전년비: 2.6%)	14 Musalem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강경, X) 연설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한국)** 12월 수출입물가 (수출 전월비: 3.7%, 전년비: 7.0%) (수입 전월비: 2.6%, 전년비: 2.2%) 12월 실업률 (전월: 2.7%, 전년: 3.7%) 11월 M2 통화공급 (전월비: 0.9%, 전년비: 8.7%) **(미국)** 30년 국채 입찰 (4.77%, 간접: 65.4%, 응찰률: 2.36배) 10월 신규주택판매(전월, 전년비는 8월) (예상(m): -11.9%, 전월비: 20.5%, 전년비: 15.4%) 11월 PPI (예상 전월비: 0.3%, 전년비: 2.6%)	15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Williams 뉴욕 연은 총재(중립, O) 연설 **(미국)** 12월 기존주택판매 (전월비: 0.5%, 전년비: -1.0%) 11월 수출입물가(전월, 전년비는 9월) (수출 전월비: 0.0%, 전년비: 3.8%) (수입 전월비: 0.0%, 전년비: 0.3%) 1월 뉴욕 연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지수 (전월: -3.9, 전년: -12.6) 1월 필리델피아 연은 업황 전망 (전월: -10.2, 전년: 44.3) **(유로존)** 11월 산업생산 (전월비: 0.8%, 전년비: 2.0%)	16 연준 Black Out(1/17~1/30) Barkin 리치몬드 연은 총재(중립, X) 연설 **(미국)** 12월 산업생산 (전월비: 0.2%, 전년비: 2.5%) 1월 NAHB 주택시장지수 (전월: 39, 전년: 47)
국고 3년 입찰 2조 9,000억원	국고	국고	국고	국고 50년 입찰 8,000억원
통안 2년 입찰 6,000억원	통안 만기 9,000억원	통안 1년 입찰 5,000억원	통안	통안
은행 만기 6,500억원	은행 만기 4,400억원	은행 만기 3,600억원	은행 만기 1조 3,600억원	은행 만기 1조 1,100억원
카드 만기 4,700억원	카드	카드	카드 만기 900억원	카드 만기 700억원
회사 만기 1조 1,200억원	회사 만기 2,000억원	회사 만기 300억원	회사 만기 4,550억원	회사 만기 1조 3,350억원

주: 한국 시간 기준, 중앙은행 인사 'O', 'X'는 당해년도 투표권 보유 여부, 자료: 연합인포맥스, Bloomberg,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